

보리류지 譯 諸經論의 역어에 대해서

김경남(동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국문초록

보리류지의 역어를 둘러싼 선행연구는 『대승기신론』과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보리류지의 역업에 보이는 독특한 용법으로는 『입능가경』 등에 보이는 「故」나 「如實修行」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보리류지역 경론 간의 관계나 특나마제 등과의 유사점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리류지의 역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역문의 경향을 밝히고, 또 여러 보리류지역 경론에 보이는 주요 술어를 들어 그 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보리류지와 특나마제에 의한 번역으로 유일하게 양본이 모두 현존하는 『법화론』의 역문을 비교해 본 결과, 특히 보리류지역에 어구의 삼입과 증보가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4자구가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구 중에서도, 그 밖의 경론에서 사용례를 조사해 보면, 「又復次為」, 「勝妙境界」는 보리류지역에서만 쓰이고 있으며, 「又復有義」, 「此義心知」는 보리류지를 비롯해서 특나마제, 비목지선 등의 역업에 보이고 있어, 당시의 공통된 경향의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보리류지역 이전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보리류지를 비롯하

여 후의 진제, 현장 등의 번역에 쓰인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다음으로, 보리류지 역업에 있어서의 주요 술어로 특히 「여실수행」과 「진여」를 들어 고찰했다. 보리류지가 이들 용어를 중시하여 대응하는 원어가 없는 경우에도 즐겨 부가해서 번역하고 있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다. 본고는, 특히 선행연구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십지경론』의 「여실수행」에 대해서 고찰, 「如說修行」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 「진여」에 대해서는, 「진여」가 「평등성」의 의미로서 쓰인 점, 「진여평등」 등 동의어를 중복해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金剛仙論』에 이르면 그러한 동의어의 증보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보리유지, 대승기신론, 십지경론, 법화경론, 입능가경, 금강선론

1. 선행 연구 및 논문의 목적

보리류지(菩提流支)의 역어를 둘러싼 선행 연구로서는, 우선 『기신론』과의 유사성과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보리류지의 역업(譯業)과 『기신론』과의 어법 및 사상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에 의해서 논구되어 있고,¹⁾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는 『기신론』에 보이는 「故」의 용례를 『능가경』이나 『보성론』 등과 비교하여, 『기신론』에 보리류지

1) 竹村牧男[1983] 「菩提流支の訳業と『大乘起信論』」 『印度学仏教学研究』63(32-1), 同[1986] 「『起信論』と『十地經論』」 『東方学』72 등.

등을 참고로 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²⁾ 또, 최근에는 용어의 보다 상세한 비교 분석을 통해 『기신론』과 보리류지 관련 문헌과의 유사성을 고찰한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의 연구가 있다.³⁾

또, 보리류지의 역어 자체에 대해서는 「如實修行」에 관한 연구가 있다. 즉, 「如實修行」이라는 용어가 특히 보리류지의 역업(譯業)에 자주 쓰이는 점에 주목해, 그 원어를 (dharma) anudharmapratipatti로 추정한 사쿠라베 하지메(桜部健)의 연구⁴⁾로서, 이후 여러 보리류지역경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시마즈 켄준(島津現淳)에 의한 『심밀해탈경』의 「如實修行」에 대한 연구⁵⁾나, 다카사키 지키도에 의한 『능가경』의 「如實修行」에 대한 연구⁶⁾ 등이 있다.

그 밖에, 『십지경론』의 번역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십지경론』의 한역의 경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내용의 전승을 둘러싸고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카모토 유키오(坂本幸男)가 법상, 혜원, 법장의 저술에 인용된 「別本」, 「別翻」의 원문의 조사를 통해, 일부분에 그치기는 하나, 현존 보리류지역과는 다른 별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했다.⁷⁾ 그리고 이 설을 수용하여, 이토 즈이에(伊藤瑞叡)는 보리류지역과 룡나마제역의 두 본이 현존하고 있는 『법화경우파데사』(이하 『법화론』)의 번역문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십지경론』에 적용하여, 보리류지역을 룡나마제역의 증역으로 보는 가설을 제시했다.⁸⁾ 또한, 오오타케 스스무(大竹晋)는 이 문제를 언급하

2) 高崎直道[1992] 「『大乘起信論』の語法「依」「以」「故」等の用法をめぐって」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哲学・史学)37.

3) 石井公成[2003] 「『大乘起信論』の用語と語法の傾向」 『印度学仏教学研究』52-1.

4) 桜部健[1970] 「世親の釈経論と菩提流支の訳業についての一考察」 『北魏仏教の研究』 平楽寺書店.

5) 島津現淳[1982] 「『深密解脱経』の「如実修行」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60(30-2).

6) 高崎直道[1993] 「魏訳『入楞伽経』の「如実修行」と『起信論』 「知」の邂逅」

7) 坂本幸男[1956] 『華嚴教学の研究』pp.367~379, 平楽寺書店.

8) 伊藤瑞叡[1988] 『華嚴菩薩道の基礎的研究』pp.75~83, 平楽寺書店.

며, 『십지경론』을 보리류지에 의한 특나마제역의 중역으로 보는 이토의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는데,⁹⁾ 그 근거로서는, 산스크리트어본에 근거해서 중역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법화론』에 비해, 『십지경론』은 중역으로 보기에는 결락이나 부적절한 어순 등이 많은 점, 또 『십지경론』에 빈번히 사용되는 문말의 무의미한 「故」의 용법이, 특나마제역에는 볼 수 없는 보리류지역만의 특징인 점을 들고 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보리류지 역어의 연구는 『기신론』 연구의 일환으로서의 비교 연구가 주가 된다. 특히, 보리류지 역어에 보이는 독특한 용법으로 「故」나 「如實修行」의 예가 지적되면서 『기신론』 등에서의 영향도 함께 논구되고 있다. 그러나, 보리류지 역경론간의 관계나 특나마제를 비롯한 당시의 역경그룹 내의 유사성 등은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2종의 『법화론』의 비교를 통해 보리류지와 특나마제역의 특징을 개관하고, 나아가 보리류지역 제 논서의 경향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如實修行」을 포함하여 보리류지가 중시한 술어의 용법과 그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보리류지역의 경향에 대해

2.1. 2종 『법화론』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십지경론』을 제외하면 보리류지와 특나마제에 의한 번역으로 『대보적경론』

9) 大竹晋[2005] 『十地經論』(新国訳大蔵経経論部16) 解題 pp.20~29, 大蔵出版.

과 『법화론』이 있는데, 『대보적경론』은 보리류지역만이 현존하고, 유일하게 양역 모두 전해지는 것이 『법화론』이다.¹⁰⁾ 『법화론』은 산스크리트어본이나 티벳어역은 존재하지 않고, 2종의 한역만이 현존한다.

『법화론』의 특나마제역과 보리류지역간의 비교에 관해서는 이미 이토의 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지만, 2종 법화론과 『십지경론』과의 관련성을 동시에 논하고 있어 알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하에 드는 예는 전부는 아니지만, 보리류지 역문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구를 들어 그 분류를 시도했다.¹¹⁾ 이하, 보리류지역과 특나마제역을 비교한 결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경문과 주석문의 구별

보리류지역은 경문과 주석문을 「經曰」, 「釋曰」로써 구별하고 있다. 특나마제역에는 한 예에 그치는데 「釋曰」이 아닌 「論曰」로 되어 있다.

B. 어구의 증보

특나마제역에 비해, 보리류지역에는 彼, 之, 諸, 於, 等, 所有, 彼此, 然後 등의 글자를 삽입하는 예가 흔히 보인다. 「希有之法」, 「彼此平等」, 「外道所有邪法」 등이 그런 예이다. 그 밖에도 어구의 증보에 의한 4자구의 용례가 두드러지는데, 자주 보이는 관용구 및 술어의 예를 특나마제역과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

10) 河村孝照[1999] 「法華論解題」 『法華文化研究』25 参照

勒那摩提訳	菩提流支訳
又 復有 復有義 應知 等故 乃至 說偈	又復次爲* 又復更有 又復有義* 應當善知/應如是知/ 如經應知*/此義應知* 如是等故 次第乃至 所說偈言
聲聞 染慢 迴趣 妙境 授記 發心	聲聞之人 染慢之心 迴心趣向 勝妙境界* 授菩提記 發菩提心

(*에 대해서는 2.2에서 다시 언급함)

C 어구의 삽입

이하는 양역을 비교하는 한, 보리류지에 의해서 삽입되었다고 보이는 예이다. 「此義應知」등, B에 든 역례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단지 글자를 보충했다기보다는 대응어가 없는 경우도 삽입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 든다. 그러나, 원문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류지에 의한 부가인지 원문에 따른 역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① 此義應知, ~應知, 何等爲~ (제시, 열거)

- 初第一品示現七種功德成就 此義應知. 何等爲七. (T26, 1a29~b1)
- 此十五句. 攝取十種功德. 應知. 示現可說果不可說果故. 何等爲十. 一

11) 보리류지, 특나마제 양역간의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보리류지역에 귀경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토 즈이에는 修多羅·婆伽婆 등의 음역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용례도 적고, 보리류지의 역경론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일관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자세한 어구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하에 드는 역주를 참조 바람.
藤井教公 외 [2001-2003] 『世親『法華論』訳注(1)-(3)』 『北大文学研究科紀要』 105, 108, 111.

者…(2a7)

- 彼不退轉有十種示現此義應知. 何等爲十. 一者…(2b1~2)
- 此大乘修多羅有十七種名. 顯示甚深功德應知. 何等十七. 云何顯示. 一名…(2c13~14)

② 又~, 言~ (어구해석)

- 又復悟者. 令外道衆生生覺悟故.(7b6~7)
- 言疑義者. 謂諸聲聞辟支佛等不能得知. 是故生疑.(6b25~26)

D 「故」의 用法

① 如經~故 (인용)

- 一句降伏世間功德. 如經心得自在故.(2a10~11)
- 二者教化成就. 如經種種知見故.(5b23~24)

② 者~[所謂~]故 (어구해석)

- 行成就者有四種. 一者謂諸聲聞修小乘行. 二者謂諸菩薩修大乘行.(1b15~17)
- 何等法者. 謂聲聞法辟支佛法諸佛法故.(6b2)
- 涅槃城者. 所謂諸禪三昧城故.(8c4)

③ 依~[故]

- 又依證法復有五種.(6a29)(~에 관해서)
- 何似法者. 依三種門得清淨故.(6b3)(~에 근거해서)
- 力者. 示現衆生有疑依十種力斷彼疑故.(8a17)(~에 의해서)

이러한 용례는 앞에 든 다카사키 논문에서 지적된 『능가경』의 용법과도 거의 일치한다. 그 중에서도 ①과 같이 경문을 인용하는 경우의 문말의 「故」는 거의 생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고」와 관련된 용법은, 특

나마제역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¹²⁾

그 밖에도, 여기에는 따로 들지 않았지만, 보리류지역에 어순이 변경되었거나 문자가 바뀐 예가 있다. 그러나, 어순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부분 내용에 큰 차이를 가져올 만한 것은 아니며, 문자의 변화도 분명하게 오자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얼마되지 않는다.

【소결】 이상의 『법화론』 양 역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 보리류지역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논의 체재의 면에서는 「경왕」, 「석왕」 등으로 경문과 주석문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어구의 삽입과 증보가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특나마제역에 보이는 간결함은 결여되어 있고, 어구를 삽입하여 4자구로 만드는 예가 많이 보인다. 다만, 전체적으로 특나마제의 역을 다소 바꾸면서 개역한 것으로 보여 양자간의 큰 차이점으로 들 만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이상의 제 특징을 단서로 해서, 그것이 다른 보리류지 역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2 제 역의 비교를 통해

이상과 같이 『법화론』의 비교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가지고 보리류지의 다른 역논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A. 「경문과 주석문의 구별」의 경우는, 여러 논에 있어 일정하지 않고,

12) 오오타케는 다카사키 논문에서 지적된 *ia*나 탈격 등에 대응하는 故의 용법이외에, 원문에 대응어를 갖지 않는 문말의 무의미한 故의 용법을 추가, 이것을 특나마제역 등과 구별되는 보리류지역 『십지경론』의 특징으로서 들고 있다. 신국역대장경 『십지경론』법례(pp.9~10) 참조.

「경왈」, 「석왈」(혹은 「논왈」)의 구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법화론』을 비롯하여 『십지경론』, 『金剛般若經論』 그리고 『文殊師利菩薩問菩薩提經論』이다.

C 「어구의 삽입」과 D 「고」의 용법은 거의 모든 논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히, 문말 「고」의 용법은 2종의 『법화론』뿐만 아니라 『보성론』에도 확인되므로, 보리류지·특나마제에 공통되는 특징임을 알 수 있다.

B 「어구의 증보」로 든 예 가운데에는 술어가 아닌 「又復」, 「應知」등, 문두나 문말에 흔히 쓰이는 표현이 많지만, 4자구는 의외로 보리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는 다른 문헌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예도 몇 가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다.

[약호] 법: 『법화론』, 승: 『승사유범천소문경론』(531), 미: 『미륵보살소문경론』, 문: 『문수사리보살문보리경론』(535), 보: 『보성론』, 십: 『십지경론』(508-511), 금: 『금강반야경론』(509) (괄호 안은 번역된 해)

a 「又復次爲」법(1)*

「又復次有」승(1)*

「又復有義」법(3), 승(3), 미(3), 보(2), 毘目智仙(45), 般若流支(1)

「又復」십(3), 문(1) (괄호 안은 등장 횟수)

이 중에서도 처음에 든 「又復次爲」의 예는 전 불전을 통해 보리류지역 『법화론』에만 한 번 보인다. 다른 한 예로 길장의 『법화론소』가 있으나, 같은 문의 인용이다. 다음 「又復次有」도 또한 『승사유범천소문경론』의 한 곳뿐이다.

「又復有義」는 보리류지와 특나마제 이외에도, 동시대의 毘目智仙 역 『회쟁론』, 『三具足經憂波提舍』, 『寶髻經四法憂波提舍』, 『轉法輪經憂波提

솨』에 많이 사용되며, 또 반야류지역 『유식론』에도 1회 볼 수 있다.

그 밖에 『십지경론』, 『문수사리보살문보리경론』에 보이는 「又復」의 예가 있으며, 한편, 『금강반야경론』에 사용되는 것은 「又」 1자만의 예이다.

b 「此義應知」법(11), 승(33), 보(1), 毘目智仙(1), 般若流支(1)

「此事應知」금(2), 십(1)

「此事說應知」십(1)

이 중에서, 「此義應知」는 보리류지역을 비롯하여, 른나마제역, 비목지선역 『삼구족경우파데샤』, 반야류지역 『순중론』에 보인다. 다음의 「此事應知」는 『십지경론』과 『금강반야경론』에 보인다. 그리고 두 예 모두, 뒤에 활동하는 진제나 현장역에서 사용된다.

c 「如經應知」법(1), 십(4)

「如經說應知」십(2)

이 두 구는 보리류지역 가운데에서는 『법화론』과 『십지경론』에서만 보이는데, 위의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보리류지 이전에는 용례를 찾을 수 없고, 진제와 현장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d 「勝妙境界」법(2), 승(2), 능(1)

이 구 또한 보리류지역에만 보인다. 『입능가경』 그리고 후의 『유가사지론』, 『기신론』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소결】 위에서 든 예는 모두 보리류지역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 그 이전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又復次爲」, 「又復次有」 그리고 「勝妙境界」 등은 보리류지 특유의 역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나마제·비목지선·반야류지 등이 번역한 경론에 사용되는 예가 많아, 당시의 공통된 경향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들 예 모두 뒤에 진제나 현장역의 논서에 잘 쓰이고 있으며 보리류지 등의 영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보리류지역에 많이 사용되는 「如實修行」과 「眞如」의 용법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 보리류지 역어의 고찰

3.1. 「如實修行」에 대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보리류지 역업에서 보이는 특징적 역어 가운데 하나인 「如實修行」에 대해서는 선학의 연구 성과가 있다. 그에 따르면, 「如實修行」이라는 어구는 특히 『심밀해탈경』이나 『입능가경』에 자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십지경론』에는 단 한 번의 예에 그치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논구도 없다. 우선 『십지경론』에 나오는 「如實修行」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십지경론』

『십지경론』에 보이는 「여실」이라는 용어의 예로서는 「如實知」, 「如實觀」 등의 예가 대부분이며, 「如實修行」의 용례는 한 예에 그친다. 그것은 초지 중에서 제2의 서원을 해석하는 가운데 보이는 「修行乃至如實修行」(Tib: 「있는

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이라는 어구이다. 管見에 의하면, 이 용례에 대해서는, 사쿠라베의 전계 논문에서 「교(āgama)가 있는 한 [교가 있는 그대로] 라는 해석이 유일한데,¹³⁾ 그것이 「如實修行」으로 번역된 이유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 위 논문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이 부분은 한역과 티벳역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이하, 해당문을 둘러싼 한역과 티벳어역의 차이점을 밝히고, 인용된 경문이나 다른 주석서를 참조하여 『십지경론』에서의 「如實修行」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해당 경문을 산스크리트어본에 따라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경] 일체여래가 설하시는 法眼을 수지하기 때문에, 일체부처의 보리를 잘 섭수하기 때문에, 일체 정등각자의 교설을 지키기 때문에, [제2의 서원을 완성한다]¹⁴⁾

그리고 『십지경론』에서는, 위의 세 구에 대해서 순서대로 「教法」 gsuñ rab kyi chos, 「證法」 thob pa'i chos, 「修行法」 sgrub pa'i chos으로 설명한 후,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논 Ch] 또한, 3종의 성취라고도 이른다. ① 첫째, 여러 부처님의 설하신 경전 등의 교설(아함)이 계속되어, 법륜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성취이다. ② 둘째, 세 가지의 정각을 증득하고, 깨달음을 획득한다고 하

13) 椽部 전계 논문 p.312

14) sarvatathāgatabhāṣīṭadharmanetrīsaṃ dhāraṇāya sarvabuddhabodhisu-parigrahāya sarvasamyaksambuddhaśāsanaparirakṣāṇāya (Rahder ed. p.14.19~21)

de bzin gśegs pa thams cad kyi gsuñs pa'i chos kyi tshul yañ dag par gzuñ ba dañ/ sañs rgyas thams cad kyi byañ chub yañ dag par blañs pa dañ/ yañ dag par rdzogs pa'i sañs rgyas thams cad kyi bstan pa yañ dag par bsrūñ ba'i phyir (D:Kha.177a3-4 / P:Li.60b4~5)

는 성취이다.③ 셋째,修行 및 如實修行에 의한 정각의 성취이다. 이것을 3종의 성취라고 이른다.¹⁵⁾

즉, 논은 경문의 세 구에 3종의 성취를 대응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행 및 如實修行」의 구는 셋째 구의 「일체 정등각자의 교설을 지키기 때문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해당하는 티벳어역에 의하면,

[논Tib]① 설법이라는 것은 경 등의 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여래는 설시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② 부처 및 ③ 정등각자는 [각각 증득과 깨달음을 완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 있는 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증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3종의 완성을 설하기 위해 [여래·불·정등각자의]세 가지 특징이 기술되었다.¹⁶⁾

라고 한다. 즉, 한역에서의 둘째 구와 셋째 구가 티벳어역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그에 따라 「있는 한」과 「있는 그대로」가 각각 ② 「부처의 證의 완성」과 ③ 「정등각자의 覺의 완성」의 설명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논Ch.의 셋째 구에는 「수행 및 如實修行에 의한 正覺의 성취」로

15) 復名三種成就. 一者, 於諸仏所說修多羅等阿含次第令法輪不斷成就故. 二者, 証三種正覺得証成就故. 三者, 修行乃至如實修行正覺成就故. 是名三種成就 (T26,138c14~18)

16) chos kyi luñ ni mdo la sogs pa'i luñ gcig nas gcig tu brgyud paḥ// de bzin gśegs pa ni bstan pa phun sum tshogs pa'i phyir ro// sañs rgyas dañ yañ dag par rdzogs pa'i sañs rgyas ni rtogs pa dañ thugs su chud pa phun sum tshogs pa'i phyir te ji sñed pa dañ / ji lta ba b'z in du mñon par thugs su chud pa'i phyir ro// de ltar phun sum tshogs pa rnam pa gsum yon's su bstan pa'i phyir mtshan gsum brjod do// (D:Ngi.138b4~5 / P:Ngi.77a8~b2)

되어 있어 경문에는 없는 「정각」이라는 말이 더해졌지만, 이 점은 티벳어역과도 통하는 듯하다. 즉, 경문을 보는 한, 세 구 가운데 證得에 관한 내용은 둘째 구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셋째 구에 「증득」과 「수행」의 어구가 모두 나오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십지경론』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관한 주석서의 해석을 참조하면, 慧遠의 『義記』에서는 「수행」은 원인이다. 「정각의 성취」는 수행에 의해서 획득되는 결과이다.¹⁷⁾ 라고 하여 수행과 정각의 어구가 인과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법장의 『탐현기』에서도 「초발심으로부터 원인의 가득참에 이르므로 「여실수행」이라고 한다. 실천을 성취하여 결과를 얻으므로 정각의 성취라고 한다」¹⁸⁾ 라는 해석을 볼 수 있다.

「수행 내지 여실수행」 구를 둘러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문에 의하면, 셋째 구는 정등각자의 교설을 지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논Tib.의 「있는 한, 그리고 있는 그대로」란, 「교설(sāsana)이 있는 한, 그리고 교설의 있는 그대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논Ch는 「수행」을 더해 번역한다. 또, 티벳어역과 한역에 「증득」 운운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 관해서는, 둘째 구의 「세 가지 정각」 구의 영향일 가능성이 충분하나, 혹은 혜원의 해석대로, 수행의 결과로서의 증득이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상, 『십지경론』에 있어서의 「여실수행」의 용례에 대해 고찰했다. 다음은 『伽耶山頂經』과 『勝思惟梵天所問經』에서의 「如實修行」의 내용을 한역의 이역 및 티벳어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7) 「修行是因。正覺成者，修得果也。」X45,96b6~7

18) 「從初發心。乃至因滿故云如實修行。行成得果故云正覺成也。」T35,307c13~14

(2) 『가야산정경』

우선, 『가야산정경』의 역례를 검토한다. 인용은 보리류지역·구라라집역·티벳어역의 순서로 예시한다(이하 같다).

- ① 諸菩薩摩訶薩如實修行得菩提. 非不如實修行得菩提. ... 如實修行者, 如說能行故. 不如實修行者, 但有言說, 不能如實修行故. (T14,486b19~23)

諸菩薩貴隨法行者能得菩提. 非不貴隨法行. 隨法行者如說能行. 不隨法行者但有言說不能如所說行. (T14,483b23~25)

byañ chub ni sgrub pa sñiñ por byed pa'i byañ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 rnams kyi yin te log par sgrub pa sñiñ por byed pa rnams kyi ni ma yin no// de la sgrub pa sñiñ por byed pa ni ji skad smras pa de b'zin du byed pa yin no// log par bsgrub pa sñiñ por byed pa ni tshig gi dños bo kho na'o// de ni sgrub pa sñiñ por byed pa mañ ba yin gyi/ log par sgrub pa sñiñ por byed pa mañ ba ni ma yin no// (P:Ngu.320a3~5)

여기서 「如實修行」은 「如實修行者」, 즉 보살을 가리키고 있다. 여실히 수행하는 보살이야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如說能行」 ji skad smras pa de b'zin du byed pa 을 내용으로 한다.

- ② 菩薩摩訶薩復有二種如實修行. 何等爲二. 一者智如實修行道, 二者斷如實修行道. (486b24~26)

諸菩薩復有二隨法行. 何等爲二. 一者行道. 二者行斷. (483b26~27)

gñis po 'di dag ni/ byañ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 rnams kyi sgrub pa ste/ gñis gañ ze na/ 'di lta ste/ lam sgrub pa dañ/ sprod pa

여기에서는 보살의 행 sgrub pa(*pratipatti)에 대해서 구마라집역과 보리류지역이 각각 「隨法行」, 「如實修行道」라고 하고 있다. 또, 그 보살의 수행에 관해서 여섯 가지로 된 「2종의 여실수행(수법행)」을 열거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 부분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한다. 그 중에 구마라집역의 「道를 행함」과 「斷을 행함」은 보리류지역에서는 각각 「智라는 여실수행도」와 「斷이라는 여실수행도」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如實修行의 내용이란, 『문수사리보살문보리경론』을 참고하면, 「성문이나 독각의 지혜를 見證하여, 다시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다」¹⁹⁾ 고 한다. 선행연구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如實修行은 대승보살의 수행을 가리키며, 『입능가경』 등에는 분명하게 초지에서 10지의 보살이라고 하는 예가 몇 있다.²⁰⁾ 그런데, 이 『논』의 해석에 의하면, 여실수행은 이승의 수행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勝思惟梵天所問經』

① 云何菩薩不斷佛種如實修行 (T15.64c20)

何謂菩薩不斷佛種 (T15.35b13)

ji ltar na sañs rgyas kyi rigs mi gcod pa rnams lags (P:Phu.30a3)

19) 以如實知証聲聞辟支仏智.而不取彼如以為究竟故.(T26.336b27~29)

yañ ñan thos dañ rañ sañs rgyas kyi theg pa mñon sum du byed pa dañ/ de dag la 'dod pa med pa'o// (P:Ngi.95b8)

20) 如實修行者(mahāyogayogin)는 말할 것도 없이 대승의 수행자, 즉 보살에 대한 설명어이기 때문에, 여실수행은 보살의 초지에서 제10 법운지에 이르는 수행을 가르키는 것이 된다.」(高崎 전계 논문 p.237)

이것은 상기 『가야산정경』의 예 ②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보리류지역의 「如實修行」에 대응하는 구마라집역은 「佛種을 끊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며, 티벳어역도 그것과 일치한다. 즉, 『가야산정경』의 예 ②와는 달리, 대응하는 sgrub pa나 「수법행」이라는 어구가 없고, 이 부분의 「여실수행」은 보리류지에 의한 삽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티벳어역에는 「불종을 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 수행자, 즉 보살을 가리키고 있다.

② 諸菩薩摩訶薩 畢竟成就四法不斷佛種如實修行 何等爲四 … 二者如實修行故. (65c15~17)

菩薩有四法不斷佛種 何等四 … 二者言必施行. (36a19~20)

tshañs pa chos bži dañ ldan na byañ chub sems dpa' sems dpa chen po
rnams sañs rgyas kyi rigs mi gcod de/ bži gañ že na/ … ji skad smras
pa de bžin byed pa dañ (32a5~6)

이 예도, 전반부는 예 ①과 같이 「如實修行」이 부가된 예이다. 다음은, 그 「불종을 끊지 않는 수행」을 네 가지로 들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 구마라집역과 티벳어역은 「설해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리류지만은 「如實修行」이라 번역하고 있다. 즉, 보리류지는 「如說修行」ji skad smras pa de bžin du byed pa 의 의미로서 「如實修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그에 따라 보리류지역은 「네 가지의, 불종을 끊지 않는 수행」과 그 중의 두 번째의 내용이 모두 「如實修行」이 되어, 티벳어역 등 다른 본을 대조하지 않는 한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

③ 得聞如是諸法正性 勤行精進 是名如實修行. (66b15~16)

若人聞是諸法正性 勤行精進 是名如說修行. (36c6~7)

gañ rnam tshul b'zin du chos bstan pa' di thos nas mos par byed pa de
dag ni ji ltar bstan pa de b'zin du rab tu sbyor ba yin te/ (33b7~8)

여기서의 「如實修行」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며 구마라집역과 티벳어 역에 의하면 「제법의 본질을 듣고 근행 정진하는 사람(보살)은 설해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②와 마찬가지로 보리류지는 「如說修行」 대신에 「如實修行」의 구를 사용하고 있다.

④ 如來常爲衆生說法. 而諸衆生依如來教. 如所說法如實修行勤修諸行.

(72b1~3)

若衆生聞是法者. 勤行精進. (41b13)

tshañs pa sems can de dag de ltar bstan pas sbyor zin rtsol te (46b8)

이 예도 위의 문맥과 다르지 않다. 보리류지에 의해서 「如說修行」의 의미로서 더해진 것이다.

⑤ 佛言天子. 如我所說隨法行者. 謂不修行一切諸法. 是名修行一切諸法 … 如是行者則不行善不行不善 … 不行生死不行涅槃. 是則名爲隨法修行. 若不修行一切法者. 名爲修行. 以世間人有法相者不如實行. 若有法相彼人則無如實修行. 若人不能住於法中. 不如實行一切諸法. 以一切法無有對故. 如是說名如實修行. (89a22~b5)
佛告天子. 隨法行者. 不行一切法 … 如是行者則不行善. 不行不善 … 不行生死. 不行涅槃. 是名隨法行. 若起法相者. 是則不名隨法行也. 若念言我行是法. 是則戲論不隨法行. 若不受一切法則隨法行. 於一切法無憶念. 無分別. 無所行. 是名隨法行. (55c17~27)

lha'i bu chos kyi nan tan zés bya ba ni gañ chos thams cad la nan tan
 med pa 'di ni chos kyi nan tan no// ... gañ dge ba la yañ mi 'jug// mi
 dge ba la yañ mi 'jug pa 'di ni chos kyi nan tan no// ... 'khor ba la ma
 yin/ mya ñan las 'das pa la mi 'jug pa 'di ni chos kyi nan tan zés bya
 ste/ chos thams cad la nan tan du bya ba med pa 'di ni chos kyi nan
 tan no// chos su 'du sés pa la chos kyi nan tan med de chos 'di la nan
 tan bya'o zés spro bar byed/ nan tan mi bya'o zés spro bar byed na ma
 zugs pa'o// chos thams cad kyi rjes su zugs pa'i nan tan 'di ni chos kyi
 nan tan no// (88a8~b5)

여기에는 수법행 chos kyi nan tan/*(anu) dharma-pratipatti의 내용이 설
 해져 있다. 수법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법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없다. 즉, 선·불선·생사·열반 등의 일체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상을 일으키
 거나 분별하는 일이 없고, 오직 일체 법에 수순하는 것, 그것을 수법행이라
 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리류지만이, 「隨法修行」과 「如實修行」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소결】 이상의 제 본의 대조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보리류지는 「修行」,
 「修行者」, 「隨法修行」, 「如說修行」 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원어에 대해서
 「如實修行」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원어에 없는 경우에도 「如實」
 을 부가하거나, 혹은 「如實修行」의 구를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如說修行」을 내용으로 하는 「如實修行」의 예는 상술한 『십지
 경론』의 용례와도 통한다고 생각된다. 또, 초지에서 제10지에 이르는 보살의
 수행을 나타낸다는 점도 「如實修行」의 내용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는 대로
 이지만, 『문수사리보살소문경론』은 이승의 수행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금강선론』에는 여실수행을 제2지 이상의 수도의 보살의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어,²¹⁾ 일정하지 않음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은, 「如實修行」과 더불어 보리류지역에 자주 보이는 술어「진여」의 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32 「진여」에 대해

「如實修行」외에 보리류지역에 많이 쓰이는 술어로서 「진여」을 들 수 있다. 「진여」를 진리·진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은 『반야경』의 작자들이다.²²⁾ 그 진리의 내용은 모든 것이 쏘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 「여여」, 「여실」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이후 「진여」로 정착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tathatā의 역어로서 「진여」가 확정된 것은 보리류지의 역업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으며,²³⁾ 역어를 「진여」로 통일하는 것은 『십지경론』을 비롯하여 보리류지의 역업에 거의 공통된 경향이다.

이하, 『십지경론』에 있어서의 「진여」의 역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1) 「云何名為如實修行。明二地已上修道菩薩。既會真如平等。現見仏性得一體慈悲故。能以無分別不取相心。而不為三事。亦不見三事相。行八萬四千諸波羅蜜故。名如實修行也。」(125.807b28~c3)

22) [1980]「ヨーガの心と真如」『仏教学』9, p.191

23) 鈴木[1928]는 『기신론』의 眞諦 번역설을 부정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진여의 예를 들고 있다. 특히 『소품반야경』의 品名 및 『능가경』 삼본에 보이는 진여(혹은 여)의 용례를 비교함으로써 tathatā의 역어가 보리류지에 와서 진여로 확정되었음을 논하고 있다. 한편, 赤沼[1929]는 아함으로부터 『해심밀경』에 이르는 진여 개념의 변천을 개관, 진여의 번역에 대해서는 앞의 스즈키 논문에 따라 보리류지 즈음의 번역으로 추정한다. 鍵井[1968]는 중국 불교에 있어서 진여라는 역어가 정착해 가는 과정을 개관, 보리류지 이전에 이미 道安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역어로서의 진여가 처음 정착된 것은 보리류지에서 비롯됨을 확인한다.

A. tathatā에 대응하는 용례

우선, tathatā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① 趣菩薩地尽修道眞如觀智故. 如經善淨智圓滿故. 此眞如觀內智圓滿普照法界. (T26,126a21~23)
- ② 眞如觀一味相故. 如經無雜故. (126c19~20)
- ③ 眞如觀勝諸凡夫二乘智等. (126c24~25)
- ④ 智者眞如無相智. 對治雜覺因意想分別故. (127c28~29)
- ⑤ 分別觀諸法自性不生. 是眞如智. 謂衆生法無我觀. (160a10~11)
- ⑥ 眞如觀堅根故. 如經善住堅根三昧故. (177a24~25)
- ⑦ 於眞如中淨無分別佛智故. 如經眞如無分別入一切智智故. (179c1~2)
- ⑧ 三入眞如不動自然行. 如經入一切法如虛空性. 是名得無生法忍故. (179c8~10)
- ⑨ 如經一切寂靜而現在前故. 眞如一切寂靜故. (180a13~14)
- ⑩ 復住報行成者. 善住阿梨耶識眞如法中故. (180a20~21)
- ⑪ 如經念隨順入如來行境界故. 如來境界者. 眞如法故. (193c28~29)

이상의 용례는 경문의 주석 부분에 보이는데, 티벳어역에 비추어 모두 tathatā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진여는 관(觀)의 대상으로서, ②一味이고, ③ 범부 이승의 지보다 뛰어나며, ④ 상을 가지지 않고, ⑤ 二無我를 대상으로 하며, ⑦ 무분별이며, ⑨ 寂靜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야경』에서 진여는 자주 「법계」, 「법성」, 「평등성」 등의 여러 가지 동의어와 함께 쓰여지며, 또 「無二」, 「無分別」, 「一味」, 「清靜」 등의 수식어를 수반한다. 『십지경론』에서의 진여는 『반야경』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B 대응어가 없는 경우

다음으로 tathatā에 대응하지 않는 용례를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예가 있다.

① 二者愛歡喜. 樂觀眞如法. 如經多愛念故. (T26,135c29)

dmigs pa la dga' bas tshim pa ñid kyi phyir dga' ba'i mchog tu dga'
ba ni gañ gi phyir dga' ba mañ ba yin zes gsuñs pa'o// (D:Ngi.132a4 /
P:Ngi.168b3)

② 此地智光明眞如事示現. 如經諸佛子譬如本眞金乃至下地善根所
不能及故. (167c)

gser gyis le sbram spug gis phyis pa'i dpes ni 'jig rten pa'i śes pa mñon
par sgrub pa dan ldan pas sa ye śes ches byañ bar yoñs su ston te/...
(D:195b6-7 / P:250a7~8)

우선, ①에서 「진여법을 즐거이 관(樂觀)한다」에 해당하는 티벳어역은 「대상을 희락한다」고 되어 있어, 「진여법」에 해당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이[2003]에, 『기신론』에 보이는 「樂念眞如法」과의 유사성이나 진여 중시의 입장에 의한 보완적 설명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²⁴⁾

또한 ②의 경우는, 한역의 「이 광명과 같은 地智의 眞如事를 시현한다」에 해당하는 티벳어역이 「세간지의 성취를 수반하므로 地智는 매우 청정한 것으로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 한역과 티벳어역의 문장에 다소 차이

24) 石井公成[2003] 『大乘起信論』の用語と語法の傾向 『印度学仏教学研究』52~1, p.206

가 있지만, 「매우 청정한 것」을 「진여」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samatā의 의미로서의 진여

마지막으로 samatā에 대응하는 예이다.

① 如經入三世眞如法中故. (T26,135c13)

dus gsum mñam pa ñid du rtogs pa yin zes gsuñs pa'o// (D:Ngi.131a6-7 / P:Ngi.167b1)

② 如經入一切菩薩眞如法故生歡喜心. (136c)

bdag ni byañ chub sems dpa' thams cad kyi mñam pa ñid dañ ldan par gyur to zes gsuñs pa'o// (D:133b5 / P:170b5~6)

③ 隨順者隨順平等眞如法故. (168a)

rjes su mthun par byed ces bya ba ni mñam pa ñid du mos pa'i phyir ro// (D:197a2-3 / P:251b4)

이 가운데 ①과 ②는 경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①은 보리심을 발한 보살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이다. 위에서 든 것처럼, 보리류지가 인용한 경문의 역은 「삼세의 진여법 중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경의 범문에는 samatānugato bhavati tryadhve²⁵⁾로 되어 있어 진여에 상당하는 말이 따로 없다. 경의 한역에도, 대응어가 없는 축법호역 『점비일체지덕경』을 제외하면 모두 「等」 혹은 「平等」으로 되어 있으며,²⁶⁾ 티벳어역의 경우도 경론 모

25) Rahder ed. p.12.4, Kondo ed. p.16.12 두 교정본에는 모두 tryadhva-라고 되어 있는데, 龍山가 tryadhve라고 교정하고 있다(龍山章真[1938] 『梵文和訳十地經』破塵閣書房参照)

26) 「便能順從三世」 『漸備一切智德經』(T10.461b8), 「等入三世」 『十住經』(T10.500b25), 「入三世平等」 『八十華嚴』 「十地品」(T10.181a24), 「隨順三世平等之法」 『仏説十地經』(T10.538a24)

두 「평등성」²⁷⁾이라 하고 있다. 즉, 보리류지는 「평등성」을 나타내는 역어로써 「진여」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것은 「과거세에는 시작이 없고, 미래세에는 끝이 없으며, 현재세에는 머뭇이 없다. 이것으로써 삼세의 평등함을 이룸하여 「如」라고 한다」²⁸⁾라고 하는 『대지도론』의 해석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당하는 경문의 「삼세의 진여법 중에 들어간다」는 구는, 「여래의 종성으로 결정하여」 tathāgatavamsāniyato bhavati 라는 구에 이어지고 있다. 후의 법장은 문제의 「진여」를 후속 구의 tathāgata 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리류지역에 대해 「이 중에 「如」자는 [진여와 여래의] 두 곳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²⁹⁾라고 해석하지만, 이 경우는 「如」의 재독이 아니라, 「평등」의 의미로서 「진여」라는 역어를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다음의 ②는 환희심에 관해서 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체 보살의 진여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여 경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①과 마찬가지로, 진여에 상당하는 원어는 samatā이고, 경의 여러 이역본에도 「평등」 등으로 되어 있으며,³⁰⁾ 보리류지역만이 「진여」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의 「평등진여법에 수순한다」의 경우, 티벳어역은 「평등성으로 信解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진여」를 보충하여 「평등진여」라고 하고 있다. 강조를 위해서 동의어인 「진여」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륵보살소문경론』에도 상기 예 ①과 같은 경문이 인용된다. 즉,

27) dus gsum mñam pa ñid kyi rjes su son' ba yin (D:Kha.175a3-4 / P:Li.58b2~3)

28) 「過去世無始, 未來世無後, 現在世無住. 以是故三世平等名為如」(T25.298b16~18)

29) 『探玄記』 「是故此中如字兩用之應知」T35.303a24~25

30) 「定平等之業」 『漸備一切智德經』(T10.461c11), 「數」 『十住經』(T10.500c14), 「平等性中」 『八十華嚴』 「十地品」(T10181b12) 『仏說十地經』(T10.538b9)

예 ①에서 「入三世眞如法中」이라는 어구가 『미륵보살소문경론』에서는 「入三世平等眞如法」으로 되어,³¹⁾ 산스크리트어본 등에 있는 「평등」에 「진여」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여와 그 동의어를 거듭해 이용하는 역례는 『금강선론』에 이르러 한층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眞如佛性無爲法身」(T25.804c6), 「眞如一體平等」(807a7), 「眞如佛性一體平等」(806 c9) 등의 예가 빈번히 사용된다.

【소결】 『십지경론』의 「진여」에 대해서는, tathatā의 역 외에도, -- 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나, 범문이나 이역에 대응어가 없는 곳에서도 「진여」를 보충해 번역하고 있는 예를 통해서, 보리류지의 진여를 중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또한, 「평등진여」 등, 동의어를 거듭해 사용하는 예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보리류지 역어의 경향을 「여실수행」, 「진여」의 두 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우선, 『법화론』을 비롯하여 보리류지역의 제 론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보리류지역에 보이는 역문의 경향을 개관했다. 그에 따라 자구의 증보에 의한 4자구의 다용이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又復次爲」, 「勝妙境界」 등, 보리류지역에만 보이는 어구, 혹은 「又復有義」, 「此義應知」 등, 보리류지 이전에는 보이지 않고 勒那摩提·毘目智仙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를 지적했다.

31) T26.235c17

그리고 「여실수행」에 있어서, 보리류지가 역문에 「여실」 혹은 「여실수행」을 즐겨 삽입하고 있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이다. 본고에서는 『가야산정경』과 『승사유범천소문경』의 예를 중심으로 그 경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십지경론』의 「여실수행」의 역례에 대해서는, 「교설에 있는 대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如說修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했다.

또한, 「진여」도 「여실수행」과 마찬가지로 보리류지에 의해서 즐겨 사용되어, 대응어가 없는 곳에서도 「진여」을 보충해 번역하거나 「평등진여」등과 같이 동의어를 거듭해서 사용하는 예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진여」의 동의어를 거듭하는 표현은 보리류지의 강 의록이라 일컬어지는 『금강선론』에 현저하여, 그와 같은 번역풍이 당시 보리류지의 역어의 특징으로서 파악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를 요하므로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十地經論』T26. No.1522 (=論Ch)
 『法華論』: 『妙法蓮華經優波提舍』(菩提流支訳), T26. No.1519
 『妙法蓮華經論優波提舍』(勒那摩提訳), T26. No.1520
 『勝思惟梵天所問經論』T26. No.1532
 『彌勒菩薩所問經論』T26. No.1525
 『文殊師利菩薩問菩提經論』T26. No.1531
 『金剛般若經論』: 『金剛般若波羅蜜經論』T25. No.1511
 『金剛山論』T25. No.1512
 『伽耶山頂經』(菩提流支訳), T14. No.465
 『文殊師利問菩提經』(鳩摩羅什訳), T14. No.464
 『勝思惟梵天所問經』(菩提流支訳), T15. No.587
 『思益梵天所問經』(鳩摩羅什訳), T15. No.586
 『義記』: 『十地經論義記』(慧遠), X45. No.753
 『探玄記』: 『華嚴經探玄記』(法蔵), T35. No.1733

Daśabhūmikasūtra Skt ed. by Rahder 1926, D: No.44, P: No.761

Daśabhūmikavyākhyāna D: No.3993, P: No.5494 (=論Tib.)

Gayāśrīṣa-nāma-mahāyāna-sūtra P: No.777

Gayāśrīṣa-nāma-sūtra-vyākhyāna P: No.5492

Brahma-viśeṣacintī-paripṛcchā-nāma-mahāyāna-sūtra P: No.827

D : The Tibetan Tripitaka, Sde dge edition

P : The Tibetan Tripitaka, Peking edition

T : 『大正新修大藏經』

X : 『卍新纂統藏經』

참 고 문 헌

- 赤沼智善[1929] 「起信論の眞如に就て」『大谷学報』10-1
- 石井公成[2003] 「『大乘起信論』の用語と語法の傾向」『印度学佛教学研究』52-1
- 伊藤瑞睿[1988] 『華嚴菩薩道の基礎的研究』, 平樂寺書店
- 宇井伯寿[1963] 『大乘佛典の研究』, 岩波書店
- 大竹晋[2005] 『十地經論』(新国訳大蔵經釋經論部16), 大蔵出版
- 鍵主良敬[1968] 『華嚴教学序説-眞如と眞理の研究』, 文栄堂
- 河村孝照[1999] 「法華論解題」『法華文化研究』25
- 坂本幸男[1956] 『華嚴教学の研究』, 平樂寺書店
- 桜部建[1970] 「世親の釋經論と菩提流支の訳業についての一考察」『北魏佛教の研究』, 平樂寺書店
- 島津現淳[1982] 「『深密解脱經』の「如實修行」について」『印度学佛教学研究』60(30-2)
- 鈴木宗忠[1928] 「起信論の成立に関する史料に就いて(下)」『宗教研究』新5-2
- 高崎直道[1992] 「『大乘起信論』の語法「依」「以」「故」等の用法をめぐって」『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哲学・史学)37
- 高崎直道[1993] 「魏訳『楞伽經』の「如實修行」と『起信論』「知の邂逅」
- 龍山章眞[1938] 『梵文和訳十地經』, 破塵閣書房
- 藤井教公外[2001-2003] 「世親『法華論』訳注(1)-(3)」『北大文学研究科紀要』105, 108, 111
- 横山紘一[1980] 「ヨーガの心と眞如」『佛教学』9

On the equivalent of Bodhiruchi's translations

Kim, Kyungnam (Tokyo Univ.)

As for the precedent study on the equivalent of Bodhiruchi,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similarity of terms between *Dasheng qixin lun* 大乘起信論 and Bodhiruchi has been done mainly. About the Bodhiruchi's equivalent itself, there is the study on "Rushi xiuxing" 如実修行 in *Lankāvatāra* 入楞伽經. However, it is a fact that the relations among Bodhiruchi's works and the similarity with Ratnamati are not mentioned very much. This paper focuses on Bodhiruchi's equivalent itself and attempts to clarify the common tendency of his translations and to examine the usage of some main technical terms in his translations.

At first,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two Chinese versions of *Miaofa lianhua jing youpo tishu* 妙法蓮華經憂波提舍, we can notice that the tendency of enlargement of the words and use of the 4 character phrases are outstanding in Bodhiruchi. And as a result of, from those examples, having investigated use or nonuse in the other Buddhist Scriptures, "youfuciwei" 又復次為 and "shengmiao jingjie" 勝妙境界 are seen in only Bodhiruchi's works. And "youfu youyi" 又復有義 and "ciyi yingzhi" 此義応知 are used in Bodhiruchi, Ratnamati and Vimokṣaprajñāṣi, so we can assume that their usage was a common tendency of those days. And they're not used before Bodhiruchi, and used afterward by Paramārtha 真諦 or

Xuanzang 玄奘 and so on.

As a main technical term, I took up the “Rushi-xiuxing” 如實修行 and “Zhenru”(Causality 真如). It is pointed out by the precedent studies, that Bodhiruchi inserted these words to emphasize, even though they had no equivalent in his manuscripts. In this paper, I will show the meaning of “Rushi-xiuxing” 如實修行 in *Daśabhūmivākyāna(Shidijing lun 十地經論)*, which is not mentioned by the precedent studies, as the “practicing according to what has been taught”(Rushuo xiuxing 如說修行). And about “Zhenru” 真如, I will point out that Bodhiruchi is using this word as the meaning of the “equality”. Furthermore, Bodhiruchi sometimes uses the synonymous repetition, for example “Zhenru pingdeng” 真如平等, and this tendency is more outstanding in his *Jingang xian lun 金剛仙論*.

◎ Key word

Bodhiruchi, *Dasheng qixin lun 大乘起信論*, *Daśabhūmivākyāna(Shidijing lun 十地經論)*, *Miaofa lianhua jing youpo tische 妙法蓮華經憂波提舍*, *Laṅkāvatāra 入楞伽經*, *Jingang xian lun 金剛仙論*

2009년 11월 20일 투고

2009년 12월 7일 심사완료